

## 한국에서 다른 식물로 인식되는 중국문학 속의 植物(2)

— 海棠花·杜鵑花·躑躅의 경우 —

팽 철 호\*

### <目次>

- I. 머리말
- II. 海棠花
- III. 杜鵑花

- IV. 躑躅
- V. 맺음말

### I. 머리말

필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중국문학 속에 등장하는 식물들 중의 일부가 한국에서는 중국 작가가 언급했던 식물과는 다른 식물로 이해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 앞선 연구에서 필자는 중국문학에 등장하는 薇·苕菜·茱萸·薤·柏 등의 식물이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와는 다른 식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海棠花, 杜鵑花, 躑躅과 菩提樹 등의 경우에도 앞에서 연구한 여섯 가지 식물의 경우와 유사한 정황이 감지된다. 그래서 선행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중국문학 작품의 원의를 충실하게 파악함으로써 한국 중문학계의 연구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에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통상적인 논문의 분량을 감안하여 이 글에는 海棠花와 杜鵑花와 躑躅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菩提樹 등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또 다른 몇 가지 식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지면을 빌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II. 海棠花

|           |                           |
|-----------|---------------------------|
| 昨夜雨疏風驟.   | 어젯밤 비 간간히 뿌리고 바람 세차게 불었는데 |
| 濃睡不消殘酒.   | 숙면을 취했건만 숙취는 가시지 않네       |
| 試問卷簾人,    | 발 걷는 이에게 물어보았더니           |
| 卻道“海棠依舊”. | 뜻밖에도 해당화가 여전하다고 하네        |
| 知否, 知否?   | 알기나 하나? 알기가 하나?           |
| 應是綠肥紅瘦!   | 녹색 짙어지고 붉은 빛 줄었을 텐데       |

너무나도 유명한 李清照의 詞 〈如夢令〉이다. 이 작품에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제재는 ‘海棠’이라는 식물이다. 아마도 이 〈如夢令〉의 유명세 덕에 해당(화)은 중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식물 또는 꽃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해당(화)은 우리나라의 시가에도 등장한다.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작품 중에 〈해당화〉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  
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이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들도 되고 셋도 됩니다.<sup>1)</sup>

1) 한용운, 《(하서명작선 58) 님의 침묵》, (주)하서출판사, 2006년 초판, 2009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화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위의 만해 선생의 시 〈해당화〉때문이라기보다는 유명한 노래의 가사에 해당화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장수철이 작사한 〈바닷가에서〉라는 동요의 가사 첫머리가 ‘해당화’로 시작하고,<sup>2)</sup> 유명가수 이미자의 히트곡 중의 하나로서 이경재가 작사한 〈섬마을 선생님〉의 첫머리도 ‘해당화’로 시작한다.<sup>3)</sup> 특히 후자는 기성세대가 해당화를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모두 해당(화)을 좋아하여 시가의 소재나 체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화가 워낙 아름다워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꽃을 보는 성정이 비슷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 아마도 한국인이 李清照의 〈如夢令〉을 감상하거나 번역할 때에 대부분은 그 ‘海棠’을 한국의 시와 가사에 등장하는 ‘해당화’와 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과연 한국인과 중국인의 눈에 비친 해당 또는 해당화가 같은 것일까?

李清照의 詞 〈如夢令〉에 등장하는 ‘海棠’이 중국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검색의 편의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그 현저한 대중성으로 인하여 대표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百度百科’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중쇄. 제57쪽에서 전제.

- 2) 1.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견노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 두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2. 저녁물 몰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 지네/ 모래마저 금같은 바닷가에서
- 3) 1.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 철새따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아홉살 섬책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2.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첫머리 두 구는 문면상으로는 비록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도 어제의 술기운이 아직 다 가지지 않은 것만을 쓰고 있으나, 이 문면의 배후에는 또 다른 한 층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술에 취한 것은 꽃을 아까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여자 사인은 내일 아침 해당화가 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젯밤 **해당화 아래에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 숙취가 남아 있는 것이다.<sup>4)</sup>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인용했지만, 해당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사의 작가가 어젯밤 해당화 아래에서 술을 마셨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이다.

사람이 꽃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자면 그 나무는 적어도 사람의 키보다 더는 커야 할 것이다. 내용의 정황상李清照의 〈如夢令〉에 등장하는 ‘海棠(花)’은 喬木이거나 小喬木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상당히 큰 나무인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다시 百度를 검색해서 海棠花의 특성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해당화(영문명: *Malus spectabilis*)는 장미과 사과나무속의 식물로서 중국의 특산 식물이다. 해발 50미터에서 2,000미터에 이르는 지역에서 자라는데, 일반적으로 평원과 산지에서 자라지만 지금은 인공적으로 옮겨져 재배되고 있다. 낙엽소교목이다. ……평소에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sup>5)</sup>

- 4) 起首兩句，辭面上雖然只寫了昨夜飲酒過量，翌日晨起宿醒尚未盡消，但在這個辭面的背後還潛藏着另一層意思，那就是昨夜酒醉是因為惜花。這位女詞人不忍看到明朝海棠花謝，所以昨夜在海棠花下才飲了過量的酒，直到今朝尚有余醉。
- 5) 海棠花(英文名: *Malus spectabilis*)是薔薇科蘋果屬的植物，是中國的特有植物。生長於海拔50米至2,000米的地區，一般生於平原和山地，目前已由人工引種栽培。為落葉小喬木。(樹皮灰褐色，光滑。葉互生，橢圓形至長橢圓形，先端略為漸尖，基部楔形，邊緣有平鈍齒，表面深綠色而有光澤，背面灰綠色並有短柔毛。葉柄細長，基部有兩個披針形托葉。花5-6朵簇生，傘形總狀花序，未開時紅色，開後漸變為粉紅色，多為半重瓣，少有單瓣花。梨果球形，黃綠色。)素有“國艷”之譽。

과연 중국인들이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은 장미과 사과나무속의 식물로서 소교목으로 분류될 만큼 제법 키가 큰 나무인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한국인이 파악하는 해당화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선명하다. 이인성이라는 화가가 1944년에 한용운 선생의 그 〈해당화〉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런데 이 그림에 들어 있는 꽃은 키가 매우 작다. 붉은색의 제법 큰 꽃을 달고 있는 해당화의 키는 꽃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목쯤에 다다르고, 작중 화자로 추정되는 여인의 앉은키보다는 약간 크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화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네이버를 검색하여 한국의 해당화에 대한 정체를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학명은 *Rosa rugosa* THUNB. 이다. 높이는 1.5m에 달하고, 줄기에 가시·자모(刺毛) 및 융모(絨毛)가 있으며 가시에도 융모가 있다. 잎은 어긋나며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으로 5~7개의 소엽이 있다. 소엽은 두껍고 타원형 또는 타원상 도란형이며, 길이 2~5cm로서 표면은 주름살이 많고 윤채가 있으며 털이 없고, 이면은 맥이 튀어나오고 잔털이 밀생하며 선점(腺點)이 있고 톱니가 있다. 지름 6~9cm의 꽃이 5~7월에 홍자색으로 피며, 향기가 강하고 꽃자루에는 자모가 있다. 과실은 가장과(假漿果)로 구형이며 8월에 황적색으로 익는다. 해변의 모래밭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며 우리나라의 전 해안 사지에서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드물다. 해당화는 꽃이 아름답고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열매도 아름다워 관상식물로 좋다. 특히, 고속도로변의 미화용으로 일품이다. 꽃은 향수원료로 이용되고 약재로도 쓰인다.<sup>7)</sup>

해당나무·해당과(海棠果)·필두화(筆頭花)라고도 한다. 바닷가 모래땅에서 흔히 자란다. 높이 1~1.5m로 가지를 치며 갈색 가시가 뾰뾰이 나고 가지에는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홀수깃꼴겹잎이다. 작은잎은 5~9개이고 타원형에서 달걀 모양 타원형이며 두껍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표면에

6)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이인성 해당화’를 검색해보실 것.

7) [네이버 지식백과] 해당화[海棠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름이 많고 뒷면에 털이 뽀뽀이 남과 동시에 선점(腺點)이 있다. 턱잎은 잎같이 크다. 꽃은 5~7월에 피고 가지 끝에 1~3개씩 달리며 홍색이지만 흰색 꽃도 있다. 꽃은 지름 6~10cm이고 꽃잎은 5개로서 넓은 심장이 거꾸로 선 모양이며 향기가 강하다. 수술은 많고 노란색이며, 꽃받침조각은 녹색이고 바소플이며 떨어지지 않는다. 열매는 편구형 수과로서 지름 2~3cm이고 붉게 익으며 육질부는 먹을 수 있다. 관상용이나 밀원용으로 심는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한다. 향기가 좋아 관상가치가 있다. 동북아시아에 분포한다. 줄기에 털이 없거나 작고 짧은 것을 개해당화(var. *kamtschatica*), 꽃잎이 겹인 것을 만첩해당화(for. *plena*), 가지에 가시가 거의 없고 작은잎이 작으며 잎에 주름이 적은 것을 민해당화(var. *chamissoniana*),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해당화라고 한다.<sup>8)</sup>

해당화는 우리나라 각처의 바닷가 모래땅과 산기슭에서 나는 낙엽관목이다. 생육환경은 모래땅과 같이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5m이고, 잎은 길이가 2~5cm, 폭이 약 1.2cm로 타원형이고 두터우며 표면에는 광택이 많고 주름이 있으며 뒷면에는 잔털이 많고 가장자리에는 잔 톱니가 있다. 줄기에는 작고 긴 딱딱한 가시가 촘촘히 있다. 꽃은 홍자색이고 지름은 6~9cm이며 새로 난 가지의 끝에서 달리고 향이 진하게 난다. 꽃잎에는 방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향수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열매는 8월경에 적색으로 지름 2~2.5cm의 편편하고 둥근 모양으로 달리며 광택이 있다. 꽃과 열매는 관상용으로 쓰이며, 향수의 원료나 약용으로도 쓰인다.<sup>9)</sup>

출처는 각기 다르지만 이 세 편의 해당화에 대한 설명은 동일한 식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해당화다. 바닷가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서 樹高가 1m 50cm가 채 되지 않는 관목이며, 줄기에는 가늘고 긴 가시가 촘촘히 나고 장미꽃과 찔레꽃의 중간쯤 되는 형태의 붉은 홑잎의 꽃이 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sup>10)</sup> 해당화가 등장하는 동요 〈바닷가에서〉도 유행가 〈섬마을 선생

8) [네이버 지식백과] 해당화[海棠花] (두산백과)

9) [네이버 지식백과] 해당화 (야생화도감(여름), 2010.6.28, 푸른행복)

님)도 그 배경이 모두 바다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같은 글자를 사용하여 ‘海棠’ 또는 ‘海棠花’라고 하지만 중국인이 말하는 海棠(花)과 우리가 말하는 해당화는 전혀 다른 식물이었다.

우리가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의 학명은 ‘*Rosa rugosa*’인데, 중국에서는 이 식물을 ‘玫瑰’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통 薔薇라고 부르는 식물을 중국인들은 ‘玫瑰’라고 하지만, 그 ‘玫瑰’는 본래 야생 장미의 일종으로 우리가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의 이름이었다.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 ‘玫瑰’를 ‘해당화’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그것을 ‘浜梨’ 또는 ‘浜茄子(ハマナス)’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sup>11)</sup>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海棠(花)을 어떤 식물로 인식하고 있을까?

장미과의 낙엽 작은키나무. 중국 원산인데, 일본에는 옛날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줄기의 높이는 5~8미터에 달하고, 가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자색으로 아래로 늘어져 퍼지는데, 끝부분이 가시로 되는 것이 있다. 잎은 마주나며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고, 어린잎의 안쪽은 붉은색을 띤다. 4~5월 경에 긴 꽃자루에 사과꽃을 닮은 3~5센티미터의 붉은색의 오판화(五瓣花)가 핀다. 열매는 직경 5~8밀리미터의 구형(球形: 공 모양)인데 황적색으로 익는다. 중국식 명칭은 垂絲海棠이다.<sup>12)</sup>

10) 民衆書林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5년 초판 제8쇄, 제1153쪽 ‘海棠(해당)’ 조에 “장미과에 속하는 고운 낙엽 관목(落葉灌木). 분홍 꽃이 뿔. 꽃은 향료(香料), 과실은 약재(藥材)로 씀. 때질레. 해당화.”라는 설명이 보인다.

11) 玫瑰(學名: *Rosa rugosa*), 屬薔薇目. 薔薇科落葉灌木, 枝杆多針刺, 奇數羽狀復葉, 小葉5~9片, 橢圓形, 有邊刺. 花瓣倒卵形, 重瓣至半重瓣, 花有紫紅色, 白色, 果期8-9月, 扁球形. 玫瑰原產是中國, 在日本 *Rosa rugosa* 称为 浜梨, 浜茄子, 朝鮮称为 해당화海棠花. 玫瑰作为农作物时, 其花朵主要用于食品及提炼香精玫瑰油, 玫瑰油应用于化妆品、食品、精细化工等工业. 在欧洲诸语言中, 薔薇、玫瑰、月季都是一个词, 如英语是 rose, 德語是 die Rose, 因为薔薇科植物从中國传到欧洲后他们并不能看出它们的不同之处, 但实际上这是不同的花种. 今天在日常用语中, “玫瑰”已成为多种薔薇属植物的通称. 市面上卖的所谓是送情人的玫瑰其实是切花月季.

12) 日本大辭典刊行會,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小學館, 1980. 제2권 제993쪽 ‘かいどう(海棠)’ : バラ科の落葉低木. 中國原産で, 日本では古くから觀賞用

각주에 명기했듯이 《日本國語大辭典》의 ‘海棠’조의 해설을 인용한 것이다.<sup>13)</sup>결론은 중국에서 垂絲海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海棠이라는 것이다. 꽃자루가 가늘고 길어 꽃이 아래로 늘어져 피는 특징이 있어서 중국에서 ‘실이 아래로 처지듯이 피는 해당’이라는 뜻을 담아 붙인 이름이 바로 垂絲海棠이다.

수사해당은 중국에서 ‘해당’이라는 이름이 붙는 많은 식물 중에 중요한 네 가지인 ‘海棠四品’에 속한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海棠’의 대표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사해당보다는 西府海棠인 듯하다.<sup>14)</sup> 그래서 중국인이 말하는海棠의 정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중국의 인식과는 얼마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는 ‘海棠’이라는 이름을 여러 종류의 식물에다 붙이고 있다. 방금 언급한 ‘海棠四品’만 하더라도 西府海棠과 垂絲海棠, 木瓜海棠, 貼梗海棠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서부해당과 수사해당은 장미과 사과속에 속하는 식물이고, 木瓜海棠과 貼梗海棠은 장미과 모과속에 속한다. 木瓜海棠은 바로 한국에서 모과나무라고 부르는 식물의 꽃인 모과꽃이다. 貼

---

に栽植されている。幹は高さ五~八メートルに達し、枝を多數分ち紫色で垂れ下がつて廣がり、先端が刺(とげ)になることがある。葉は互生し、先のとがった橢圓形で、若葉のうちには紅色を帯びる。四~五月頃、長い花柄(かへい)にリンゴの花に似た三~五センチメートルの紅色の五瓣花が開く。果實は徑五~八ミリメートルの球形で、黄赤色に熟す。漢名、垂絲海棠。

- 13) 이 사전에는 ‘海棠花’ 조가 없기 때문에 이 ‘海棠’은 곧 ‘해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4) 西府海棠(学名: *Malus micromalus*)为蔷薇科苹果属的植物, 小乔木, 高达2.5-5米, 树枝直立性强, 为中国的特有植物。西府海棠在北方干燥地带生长良好, 是绿化工程中较受欢迎的产品。在中国果品名称中, 海棠的品种极为复杂, 尚待研究统一。在植物分类中, 暂以西府海棠 *M. micromalus* Makino 一名概括之, 不再分列为多种, 以免引起混乱。海棠的主要栽培品种有河北怀来的“八棱海棠”、昌黎的“平顶热花红”、“冷花红”, 陕西的“果红”、“果黄”, 云南的“海棠”和“青刺海棠”。2009年04月24日被选为陕西宝鸡的市花, 宝鸡古有西府一称, 西府海棠由此而来。

梗海棠은 한국에서 명자나무라고 부르는 식물의 꽃인데, 명자나무의 꽃이 나무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피므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이들 이외에도 秋海棠이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베고니아를 일컫는 이름이다.<sup>15)</sup>

중국에는 海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은 다양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내용의 정황으로 보면, 중국인이 애호하는 대표적인 꽃의 한 종류로서 중국 문학에 등장하는 海棠 또는 海棠花는 주로 장미과 사과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사과나무속 중에서 사과나무를 제외한 것들을 한국에서는 대개 ‘꽃사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중국에는 그 종류가 10여 종이 넘는 듯하다.<sup>16)</sup> 여러 가지 海棠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해당(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사진,<sup>17)</sup> 그리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해당(화)의 형태<sup>18)</sup>를 보면 한국에서 ‘스펙타빌리스 꽃사과’로 번역되고 있는 海棠花(*Malus spectabilis* (Aiton) Borkh.)와 역시 한국에서 ‘제주아그베’로 불리는 西府海棠(*Malus micro m alus* Makino)

15) 我們通常所說的海棠是指薔薇科蘋果屬的植物，有時也包括薔薇科木瓜屬的木瓜海棠、貼梗海棠，在某些情況下甚至秋海棠科的秋海棠也被泛稱為海棠。準確地說，海棠是指以栽培觀賞為目的，果實直徑小於等於5cm的蘋果屬植物，英文為 crabapple。海棠在我國古代被統稱為柰，唐朝時出現“海棠”這一稱謂，在明代王象晉的《二如亭群芳譜》中“海棠”一名被冠用於今天的4種植物：西府海棠(*Malus micromalus*)、垂絲海棠(*Malus halliana*)、貼梗海棠(*Chaenomeles speciosa*)和木瓜海棠(*Chaenomeles cathayensis*)。王象晉的這種觀點影響深遠，至今這4種植物雖不同屬，西府海棠、垂絲海棠屬於蘋果屬，貼梗海棠、木瓜海棠屬於木瓜屬，但名字中都帶有“海棠”二字。

16) ① 垂絲海棠(*Malus halliana* Koehne) ② 河南海棠(*Malus honanensis* Rehder) ③ 湖北海棠(*Malus hupehensis* (Pamp.) Rehder) ④ 陝東海棠(*Malus kansuensis* (Batalin) C. K. Schneid.) ⑤ 山楂海棠(*Malus komarovii* (Sarg.) Rehder) ⑥ 西府海棠(*Malus micromalus* Makino) ⑦ 滄江海棠(*Malus ombrophila* Hand.-Mazz.) ⑧ 西蜀海棠(*Malus prattii* (Hemsl.) C. K. Schneid.) ⑨ 三葉海棠(*Malus sieboldii* (Regel) Rehder) ⑩ 海棠花(*Malus spectabilis* (Aiton) Borkh.) ⑪ 變葉海棠(*Malus toringoides* (Rehder) Hughes) ⑫ 花葉海棠(*Malus transitoria* (Batalin) C. K. Schneid.) ⑬ 滇池海棠(*Malus yunnanensis* (Franch.) C. K. Schneid.)

17) 百度百科의 ‘海棠花’條와 ‘西府海棠’條 참조.

18) 百度百科의 ‘海棠’條에 실려 있는 宋代 작가의 그림인 <海棠蛺蝶圖> 참조.

두 가지가 중국인에게 가장 대표성이 큰 海棠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sup>19)</sup>

### Ⅲ. 杜鵑花

李白의 詩 중에는 〈宣城見杜鵑花〉라는 작품이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출간한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다.

|         |                                    |
|---------|------------------------------------|
| 蜀國曾聞子規鳥 | 예전에 촉 땅에서 자규 소리 들었는데               |
| 宣城還見杜鵑花 | 선성에서 또 다시 두견화를 보는구나.               |
| 一叫一回腸一斷 | 한번 울면 한 번씩 애간장 끊어지고                |
| 三春三月憶三巴 | 늦은 봄 삼월에 고향을 그리워하네. <sup>20)</sup> |

이 번역에서는 作品의 題材가 되는 ‘杜鵑花’와 그와 관련된 ‘子規鳥’를 그대로 한국 발음으로 옮겨 놓은 것이 눈에 띈다. 原詩의 어휘를 그에 대응하는 한국말로 일일이 바꾸지 않고 한자의 발음을 한국 발음으로 옮기기만 한 것이다. 무리를 하지 않으려는 역자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소간 무성의한 느낌도 든다. 역자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지 아니면 작품에 杜鵑花와 ‘子規鳥’가 같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전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지, ‘子規鳥’ 아래에 註를 달아서 子規鳥와 杜鵑花에 얽힌 중국의 전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 비록 한국인이 ‘海棠’, 또는 ‘海棠花’라는 이름으로 인식하는 식물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한국 측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논지가 전개되었으나, 한국의 해당화만이 바다 가까이에서 주로 자란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해당화가 ‘海棠’의 ‘海’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이 ‘해당화’라고 부르는 해당화가 본래의 해당화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20) 황선재 역주, 《李太白名詩文選集》, 박이정, 2013. 제309쪽에서 전개.

중국 고대 전설에 의하면, 주대(周代) 말엽 촉국(蜀國) 국왕인 두우(杜宇)는 망제(望帝)라 불렸는데, 후에 제위를 재상인 개명(開明)에게 전위하고 산중에 은거하였다. 그가 죽은 후 백성들은 그를 사모하면서 혼령이 두견새라고도 부르는 자규(子規)가 되었다고 믿었다. 이 새는 매년 음력 삼월이 되면 ‘불여귀거(不如歸去), 불여귀거(不如歸去)’라고 처량하게 울 때 주둥이에서 피가 나는데, 그 선혈이 온산의 꽃을 붉게 물들였으므로 사람들은 이 붉은 꽃을 두견화(진달래)라고 불렀다.<sup>21)</sup>

이 註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견화(진달래)’라는 부분이다. ‘두견화’는 ‘진달래’와 같은 말이라는 표현이다. 사실 한자 말 ‘두견화’를 우리말의 ‘진달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한국의 유명한 국어사전에도 ‘두견화(杜鵑花)’라는 말이 실려 있고 거기에 ‘진달래꽃’이라는 풀이가 달려 있는 것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sup>22)</sup>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註의 ‘두견화’에 대한 해설은 ‘杜鵑花’에 대한 중국에서의 설명과 유사하지만,<sup>23)</sup>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진달래의 속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달래의 색깔은 핏빛과는 얼마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흔한 진달래의 색깔은 분홍색이 위주고 얼마간 꽃분홍색이 섞여 있다. 그런 빛깔의 진달래를 보고서 핏빛을 연상하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百度에서 찾아보면 900종이 넘는다는 杜鵑花의 품종 중에서 代

21) 같은 책, 같은 쪽 제1번 각주 참조.

22) 이희승 감수, 민중서림편집국 편,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1974년 초판, 2002년 제5판 제3쇄, 제645쪽 ‘두견화’ 조 참조.

23) 百度百科 ‘杜鵑花·植物文化·典故’: 關於杜鵑花和杜鵑鳥, 還有個優美而離奇的傳說。相傳遠古時蜀國國王杜宇, 很愛他的百姓, 禪位後隱居修道, 死了以後化爲子規鳥(有名子鵑), 人們便把它稱爲杜鵑鳥。每當春季, 杜鵑鳥就飛來喚醒老百姓“塊塊布穀! 快快布穀!”嘴巴啼得流出了血, 鮮血灑在得上, 染紅了漫山的杜鵑花。

表格으로 제시한 것은 그 색깔이 선홍색의 핏빛에 가깝다. 아마도 중국에서 그런 전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두견화 품종은 그런 색을 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에서 두견화라고 불리는 그 식물의 학명은 ‘*Rhododendron simsii* Planch.’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네이버에서는 이 식물을 진달래과의 한 가지 식물이라고 설명한 것만 찾아볼 수 있지 그 구체적인 이름은 발견할 수 없다. 중국의 이 두견화는 한국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거나 적어도 흔하지 않은 식물임이 분명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진달래’라고 부르는 식물의 학명은 ‘*Rhododendron mucronulatum*’인데,<sup>24)</sup> 이것을 중국에서는 ‘金達萊’라고 하고 ‘迎紅杜鵑’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金達萊’라는 말은 한국어의 ‘진달래’를 음역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5)</sup> 곧 한국에서 ‘진달래’라고 하는 식물은 한국에는 흔한 것이지만 중국에는 그다지 흔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측에서도 한국에 흔한 진달래는 한국의 고유 수종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4월에 걸쳐서 분홍빛의 보라색 꽃을 피운다.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부에 자생한다. 일본에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원 등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한정된다. 일본의 쓰시마와 규슈 북부, 주고쿠 지방에 등에 분포하는 玄海躑躅(*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은 그것의 변종이다.<sup>26)</sup>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중국에서 杜鵑花 중에서 꽃 색이 핏빛에 가까운

24) [네이버 지식백과] 진달래[korean rosebay] (두산백과)

25) 百度百科 ‘金達萊’條 참조.

26) 위키피디아(일본판) ‘カラムラサキツツジ(唐紫躑躅, 学名: *Rhododendron mucronulatum*)’: 3~4月にかけて桃紫色の花をつける。朝鮮半島、中国東北部に自生。日本にはほとんど自生しておらず、日本で見られるのは植物園などで栽培しているものにほぼ限られる。日本の対馬や九州北部、中国地方などに分布するゲンカイツツジ(玄海躑躅、*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はこれの変種である。

선홍색의 것을 ‘杜鵑花’의 대표로 삼아 전설을 만든 것을 한국에서는 꿩빛과는 거리가 있는 색깔을 가진 진달래와 관련된 전설이라고 생각하여 중국문학의 작품에 등장하는 ‘杜鵑花’를 한국의 진달래로 이해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IV. 躑躅

진달래와 유사한 식물 중에 철쭉이라는 것이 있다. 철쭉꽃은 진달래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진달래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순서인데, 진달래가 꽃이 핀 다음에 잎이 나는 것과는 달리 철쭉은 잎이 돋아난 다음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꽃이 피는 시기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진달래꽃이 질 무렵에 철쭉이 꽃을 피운다. 철쭉의 꽃잎에서는 끈적이는 점액이 느껴지는데 진달래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 두 가지 식물을 분간하는 차이점이 된다. 그리고 진달래꽃은 그냥 먹거나 꽃지짐을 부쳐 먹을 수 있지만, 철쭉에는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양자 간의 큰 차이점이다.

철쭉은 한자말 躑躅의 한국식 발음이다. 躑躅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곧 중국에 躑躅이라는 식물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의 철쭉이 한자말 躑躅에서 나왔으므로 한국에서 철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식물과 중국에서 躑躅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은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철쭉이라고 부르는 식물과 중국에서 躑躅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철쭉’이라고 불리는 식물은 학명이 ‘*Rhododendron schlippe nbachii* Maxim.’인 ‘진달래과(Ericaceae)’ 식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 식물에 대하여 “위쪽에 피는 꽃에는 붉은 자주색 반점이 있다. 꽃자루와 씨방에 끈끈한 잔털이 있어 만져보면 끈적하다. 꽃이 아름다워 발걸음을 머뭇(蹙, 躑) 머뭇(축, 躅)하게 한다고 철쭉이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생

약명은 ‘양척족(羊躑躅)’이라고 한 것도 눈에 띈다.<sup>27)</sup>

그러나 연한 분홍색으로 흰빛이 강하게 도는 이 한국의 철쭉을 중국에서는 ‘大字杜鹃’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 전역에 흔한 식물이 아니라 中國의 遼寧지역과 內蒙古와 한반도, 그리고 日本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8)</sup> 일본에서는 중국의 이 설명과는 약간 다르게 이 식물이 ‘중국의 북동부와 러시아의 극동부, 그리고 한반도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일본에는 에도시대 초기인 1668년에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하고 있다.<sup>29)</sup> 그렇다면 한국에서 철쭉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大字杜鹃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거의 한국의 고유 수종에 가까운 식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躑躅’에 대하여 百度百科에서는 ‘躑躅花’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설명을 붙이고 있다.

영산홍, 만산홍, 산척족, 홍척족, 산석류 등으로도 부른다. 두견화과에 속한다. 두견화는 중국 남방에 야생하는 것이 많은데, 품종과 유형이 매우 많다. 귀주성 경내의 고산 두견의 원시림은 나무의 몸체가 커서 상당히 장관이다. 사람이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대개가 관목 형태의 두견이다. 철쭉꽃은 두견화의 일종이나 철쭉꽃은 노란색의 야생 두견화를 특별히 가리키는데, 통상적으로 재배하는 두견 중에는 노란색의 것이 없다.(흰색, 붉은색, 분홍색, 보라색만이 있다) 이 노란색의 두견에는 독이 있어서 산에 방목하는 양이 잘못하여 그 꽃과 잎을 먹은 후에는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해 지므로 ‘羊躑躅’이라고 부른다.<sup>30)</sup>

27) [네이버 지식백과] 철쭉(약초도감, 2010.7.5, (주)넥서스)

28) 百度百科 ‘大字杜鹃’: “常生于低海拔的山地阴山阔叶林下或灌丛中。分布于中国辽宁和内蒙古、朝鲜、日本。该物种因花朵美丽, 颜色鲜艳, 人工栽培, 具有较高的园艺价值。”

29) 위키피디아(일본어판) ‘クロフネツツジ(黒船躑躅、学名: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中国東北部、ロシア極東部および朝鮮半島に自生する。日本には江戸時代初期の1668年に朝鮮半島から渡来したとされており、栽培されている。”

30) 百度百科 ‘躑躅花’: “又名映山红、满山红、山躑躅、红躑躅、山石榴等。属杜鹃

위의 설명으로 보면 중국에서 ‘칠쭉꽃’ 곧 ‘躑躅花’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식물종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용도를 제한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식물을 지칭하며, 그런 경우에 그것을 ‘羊躑躅’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학명을 첨부하지 않았던 ‘躑躅花’의 경우와는 달리 ‘羊躑躅’ 조에는 ‘*Rhodo dendron molle* (Blume) G. Don’라는 학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이 종은 유명한 유독식물 중의 하나이다. 《神農本草》 및 《植物名實圖考》에서는 그것을 독초류에 넣고 있는데, 풍습성 관절염과 타박상을 고칠 수 있다. 민간에서는 통상 ‘鬧羊花’라고 한다. 식물체 각 부분은 ‘鬧羊花毒素(rhodo japonin)’, 아세보 독소(asebotoxin), ericolin, andromedotoxi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사람이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데, 양이 먹을 때에는 종종 비틀거리다가 죽게 되므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의약 공업에서는 마취제 진통제로 쓰는데, 식물체 전체는 농약이 될 수도 있다.<sup>31)</sup>

그런데 이 羊躑躅이라는 식물종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두 블로그에서 중국의 것을 빌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비교적 형식을 갖춘 형태의 설명은 찾아지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 양상은 한국과 비슷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羊躑躅’이라는 식물은 한국에서는 자생하지

花科。杜鹃花在我国南方多有野生，品种及类型很多。贵州省境内的高山杜鹃的原始林，树身高大，颇为壮观。人们栽培观赏的多为灌木状的杜鹃。躑躅花是杜鹃花的一种，但是躑躅花特指黄色的野生杜鹃，而通常栽培的杜鹃是没有黄色的（仅有白、红、粉、紫），这种黄色的杜鹃有毒，在山上放牧的羊误食它的花和叶后会踉踉跄跄，步履不稳，故名‘羊躑躅’。”

31) 百度百科 ‘羊躑躅’：该种为著名的有毒植物之一。“神农本草”及“植物名实图考”把它列入毒草类，可治疗风湿性关节炎，跌打损伤。民间通常称“闹羊花”。植物体各部含有闹羊花毒素(rhodo japonin)和马醉木毒素(asebotoxin), ericolin和andromedotoxin等成份，误食令人腹泻，呕吐或痉挛；羊食时往往踉跄而死亡，故此得名。在医药工业上用作麻醉剂、镇痛药；全株还可做农药。

않는 중국의 고유 수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철쭉도 ‘羊躑躅’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철쭉은 학명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이었고, 중국의 羊躑躅은 ‘*Rhododendron molle* (Blume) G. Don’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屬이 다른 식물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철쭉은 거의 한국의 고유 수종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중국의 羊躑躅은 중국의 고유한 수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羊躑躅’이라는 이름을 공유한다면 한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羊躑躅’이라는 이름의 구성으로 보아 ‘양이 그것을 잘못 먹고 중독되어 비틀거린다’라고 한 중국 측의 해설이 ‘꽃이 아름다워 발걸음을 머뭇(척, 躑) 머뭇(축, 躅)하게 한다고 철쭉이다’라고 한 한국 측의 해설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해설을 羊躑躅에 대입하면 ‘양이 그 꽃을 보고서 하도 예뻐서 발걸음을 머뭇머뭇 한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뜻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혹 시가에 등장하는 ‘躑躅’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필자의 과문으로 아직 확인한 바 없지만,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철쭉’이라고 옮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문학작품에서 ‘躑躅’이라는 말을 만날 때에는 노란색 꽃을 떠올릴 것이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철쭉’으로 번역하면서 흰 빛이 강한 그 연분홍 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sup>32)</sup> 결국 중국문학 속에 등장하는 ‘躑躅’이라는 식물을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식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물론 ‘躑躅’이라는 말의 용도가 넓어 노란색이 아닌 붉은 색 꽃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흔히 자생하는 그 산철쭉은

32) 潘富俊의 《中國文學植物學》에서는 ‘躑躅’조에서 ‘躑躅’의 어원을 ‘양이 그것을 잘못 먹어서 중독되어 비틀거린다’라고 한 것을 소개하고, 그 대표식물로 ‘羊躑躅’을 제시하면서 노란색 꽃을 피운 식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가에 나타나는 躑躅은 경우에 따라서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식물일 수도 있고, 붉은색의 꽃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潘富俊, 《中國文學植物學》, 貓頭鷹出版社, 2011년 초판, 2012년 재판, 제 144쪽 참조.)

아니다.<sup>33)</sup> 붉은 꽃을 피우는 것으로서 한국에 흔히 자생하는 산철쭉은 학명이 '*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 (Lev.) Nakai'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poukhanense'는 서울의 북한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학명에서 그것이 한국의 고유 수종임을 드러내고 있듯이,<sup>34)</sup> 산철쭉은 통상적인 중국의 판도<sup>35)</sup> 안에서는 자생하기 힘든 한국 고유의 수종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躑躅'이 중국문학에 붉은 꽃을 피우는 식물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철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 V. 맺음말

海棠花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많은 사랑을 받는 꽃이다. 그래서 중국문학에는 종종 해당화가 아름다운 자태로 등장한다. 海棠花는 한국의 시와 노래에도 등장하여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정감 있는 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과 중국인들이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은 전혀 다른 식물이다. 한국인들이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은 장미과 장미속의 한 가지 식물이지만, 중국인들은 사뭇 여러 종류의 식물을 해당화라고 부른다. 그 중에는 장미과 사과나무속의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장미과 모과나무속의 것이 두 종이 있으며, 초본식물인 베고니아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중국문학에서 해당화를 만나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가지, 중국문학 속의 해당화는 한국인들이

33) 唐나라白居易의 시 <題元十八溪居>에는 '晚葉尚開紅躑躅'라는 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躑躅이 붉은 색을 띤 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의 躑躅이 꼭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식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흰빛이 강한 한국의 철쭉과는 다른 것은 분명하다.

34) 그래서 산철쭉을 영어로는 'Korean Azalea'라고 부른다.

35) 대략 만리장성 이남의 중원 지역을 말한다.

해당화라고 부르는 식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杜鵑花도 중국문학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식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진달래’로 번역하지만, 진달래는 한국의 고유 수종에 가까운 식물이다. 중국의 두견화가 같은 과에 속하는 여러 종의 식물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한국의 진달래는 그 범주에 포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눈에 보이는 식물을 두견화라고 부를 때에, 그 식물이 진달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연분홍이나 꽃분홍색이 주류를 이루는 진달래를 핏빛을 띤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두견화와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했던 것이다.

두견화와 비슷한 식물인 躑躅 곧 철쭉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저마다 다른 식물로 생각한다. 중국의 躑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한국의 철쭉에도 현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교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의 철쭉과 산철쭉도 한국의 고유 수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자신의 눈에 들어온 식물을 두고 躑躅이라고 한 것이 한국의 철쭉이거나 산철쭉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중국인이 躑躅을 좀 더 특정하여 羊躑躅이라고 할 때, 한국의 철쭉도 生藥名으로는 羊躑躅이라고 한다 하여 한국의 철쭉을 연상한다면 더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중국의 羊躑躅은 노란색이고 한국의 철쭉은 흰빛이 강한 연분홍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국문학을 감상하고 연구하는 한국인들은 중국문학에 등장하는 일부 식물의 정체를 다른 식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 속의 식물에 대한 오인은 결국 작품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문학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한국중국문학계에 엄존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식물을 넘어 중국문학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기물 등으로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 Han Yong-un, *Thy silence*, Seoul: Haseo Press, 2006.
- Editorial department of Minjungseorim, *Grand Chinese-Korean Dictionary*, Seoul: Minjungseorim Press, 2005.
- Publications Committee of Grand Japanese Dictionary, *Grand Japanese Dictionary*, Tokyo: Shogakkan Press, 1980.
- Hwang Seon-jae(translation and annotation), *Anthology of Li Bai's Literary Works*, Seoul: Pakyijung Press, 2013.
- Lee Hee-seung(supervision), Editorial department of Minjungseorim (edition), *Essence Korean Dictionary*, Seoul: Minjungseorim Press, 2002.(5th edition)
- Pan Fujun, *Chinese literature Botany*, Taipei: Maotouying Press, 2012. (2nd edition)
- Sakumisao(translation), *Full Collection of Bai Juyi's Poetry*, Tokyo: Japan Book Center, 1978.
- Naver encyclopedia
- Baidu baike
- Wikipedia (Japanese)

<Abstract >

Some plants in chinese literature are recognized as different plants by koreans. The plant called haedangwha(海棠花) in korean name is different from the plant called haitanghua(海棠花) in chinese name. The haedangwha(海棠花) is *Rosa rugosa* THUNB, and the haitanghua(海棠花)

is *Malus spectabilis*. The dujuanhua(杜鵑花) in chinese literature is often translated into jindallae(진달래) in Korea. But the dujuanhua and the jindalla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ujuanhua is *Rhododendron simsii* Planch, and the jindallae is *Rhododendron mucronulatum*. The chinese plant name of zhizhu(躑躅)'s korean version is cheoljjuk(철쭉). But the plant name of zhizhu and cheoljjuk also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hinese zhizhu is *Rhododendron molle* (Blume) G. Don, and the korean cheoljjuk is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The flower of zhizhu is yellow, and that of cheoljjuk is light pink.

Key Words : 해당화(*Rosa rugosa* THUNB), 海棠花(*Malus spectabilis*),  
杜鵑花(*Rhododendron simsii* Planch),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躑躅(*Rhododendron molle* (Blume) G. Don), 철쭉(*Rhododendron schli ppenbachii* Maxim)